

# 당내 통합·정책 우클릭... 이재명 '두 토끼' 모두 잡는다

### 실용주의 앞세워 중도·보수 포지션 '조기 대선 운동장 넓히기' 통상 대응, 외교·안보 이슈 거론...비명계 잠룡들과도 연쇄 회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통합 행보와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클릭' 행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와 중도·보수층인 '산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운 데 이어 최근에는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으로 규정하고 외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당 안팎에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극우화된 이상 실용주의 원칙 속에 중도·보수를 아우르며, 기존의 진보 가치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 주변에선 중도·보수 인사들과 손잡는 '대연정' 구상과 '핵 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찬성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을 취했다가 노동계 반대가 거세져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당내

노출을 찾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대표는 당의 계파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과 포용'을 내세워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박병의 승부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내부분열은 필패'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0.73%포인트' 차 석패의 원인 중 하나로 계파 간 화학적 결합 실패가 꼽혔던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친문(친문재인)계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27일), 김동연 경기지사(28일)와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1일에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공천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당시 '비명횡사' 논란에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는 온도 변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가 '당 정체성' 논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는 "당의 뿌리인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친명(친이재명)계는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에 대해 '중도 우파', '보수정당'이라고 했다며 맞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당내 큰 역할 해달라"... 박 "악연 털고 힘 합치자"

### 이재명, 박용진과 총선 후 첫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으며,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 때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첫 만남이다.

이 대표가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당 일을 하다 보니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 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라고도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회동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 총선에서 세 번 경선하고 네 번 배제되는 모진 일을 겪으면서도 탈락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고 합리적 정치 세력이 정권 교체하도록 힘을 보태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기 온 것으로 지난 악연은 털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

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극우세력이 무리 짓고 거기에 정치세력이 결합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박 의원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고, 박 전 의원은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나가야 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40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박 전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세대의 국민이 불 때는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달라 정치·도덕적 내로남불 사례가 너무 많이 쌓였고, 이를 두고 '낡은 정치'라고 말하니 그런 면에서 세대교체와 586 정치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회동 전 이 대표가 말한 박 전 의원의 당내 역할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안철수 "통합으로 가야" 사실상 대권 도전

###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앞 기자회견... 개헌·중대선거구제 전환 제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 복원'의 한 방법으로 개헌을 거

론한 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입법, 행정 권력의 축소를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안 의원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준비 중인 플랜B는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자세한 생각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민주 정년연장 TF, 입법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년 연장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김성희 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 상반기부터 정년 연장 관련 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바다2, 자옥2, 나부2, 도일2, 포카비2, 우주별2, 파위2, 빛고을2, 금빛2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서리 1094-7, 1094-6, 1094-5, 1094-31, 1094-30, 1094-3, 1094-29, 1094-26, 1094-23, 1094-22, 1094-20, 1094-16, 1094-15
- 발전소의 면적**  
• 바다2(23,37㎡), 자옥2(39,97㎡), 나부2(4,75㎡), 도일2(4,381㎡), 포카비2(4,671㎡), 우주별2(5,923㎡), 파위2(5,029㎡), 빛고을2(4,248㎡), 금빛2(4,079㎡)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바다2(2099.36kW), 자옥2(2099.36kW), 나부2(2099.36kW), 도일2(2099.36kW), 포카비2(2099.36kW), 우주별2(2099.36kW), 파위2(2099.36kW), 빛고을2(2099.36kW), 금빛2(2099.36kW) 태양광발전소  
• 사업개시예정일: 2026년 12월 30일  
• 사업 운영기간: 2026년 12월 30일 ~ 2046년 12월 30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바다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자옥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나부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도일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포카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우주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파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빛고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금빛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의견제출기간**  
• 2025년 2월 24일 ~ 2025년 3월 2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556-1504  
• FAX) 02-556-1502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광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 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